

참다운 대인지학을 위하여

김 교 빈 | 호서대 철학과 교수

대학과 대인지학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은 그 명칭에서는 전통을 계승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서구적인 틀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서양식 학제를 받아들이면서 태학(太學)이라고도 불렀던 중국 고대로부터 존재한 가장 상위 교육기관의 이름을 따다가 서구의 University 또는 College를 번역한 것이 대학이며, 본래 의미는 대인지학(大人之學), 즉 '큰 사람을 기르는 학문'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반대는 무엇일까? 대학의 반대는 소학으로서 소인지학(小人之學), 즉 '작은 사람을 기르는 학문'을 뜻한다. 과거 지금의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이런 교육목적의 차이를 감안한 때문이었다. 이처럼 대학과 소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설치 목적도 다르고 그에 따른 역할도 다른 것이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대학을 나온 사람과 소학교만 나온 사람을 차등적으로 규정지으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를 비롯하여 우리 대부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이 과연 대학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학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닌 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스스로

를 돌아켜보는 반성의 자료로 삼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대학의 본래 의미인 '큰 사람을 기르는 학문'이란 무슨 뜻일까? 대학은 동양의 고전인 사서(四書) 가운데 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바로 그 『대학』의 첫 머리는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민중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완전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는 말로 시작된다. 이 말 가운데 큰 배움의 길이란 큰 사람이 되는 배움의 길을 뜻한다. 그리고 『대학』은 이러한 배움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 있는 타고난 밝음,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욕심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끊임 없이 닦아가는 노력이며, 민중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수양을 통해 얻어진 도덕적 판단지를 가지고 선구자적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 유가에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 번째로 제시된 완전한 선이 실현된 대동(大同)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위에 제시한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큰 사람을 기르는 데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세 가지의 출발점인 자신을 닦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대학은 수양하러 오는 곳일세’

필자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은 인문분야가 대개 그러했듯이 철학과에서도 석사학위는 보통 5~6년, 박사학위는 8~9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었고, 심지어는 석사 7년, 박사 10년 만기가 되어야 수여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필자도 이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어서 석사과정을 다 마치고도 몇 년 동안은 신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문지도를 받기 위해 지도교수를 찾아 뵙고는 하였다. 대개 일주에 한번씩은 논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부지런히 읽어 정리해서 가져가곤 하였는데, 가끔씩 선생님은 논문 주제와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다른 주제를 주시며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하여 오라고 하시는 적이 많았다. 그리고 논문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 한참 보시고는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실 뿐이었다. 그런 후 심사숙고 해서 한달쯤 뒤 다시 논문 목차를 고쳐 가면 마찬가지로 한참을 보시고는 ‘그래 생각이 조금 바뀌었지. 한번 더 생

각해 보게’ 라고 말씀하셨다.

과정을 수료하고 3년쯤 지났는데 ‘이제부터 논문을 써 보게’ 라는 말씀이 아직 없어 초조해 하던 내게 그 날도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주제를 과제로 주셨고, 아마도 필자가 그 말씀에 혼쾌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드렸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지나가는 말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은 꼭 교수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수양을 더 쌓으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라고 하셨다. 사실 필자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어쭙잡게 동양철학을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막연히 일생 동안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책 보면서 지내겠다는 생각을 했던 터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한 편으로는 ‘에’ 하고 대답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세상 변화와 먼 말씀을 하신다는 야속한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50을 바라보는 지금 그 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선생님께서 과제로



주신 논문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던 주제들이 그 이후 폭넓은 사고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되었고, 지금도 나 자신을 좁은 전공의 테두리에 머물지 않게 하는 힘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선생님은 필자가 박사 과정에 입학한 첫 학기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당시 시간강사였던 나는 이틀 저녁을 빈소에서 보내면서도 발인하는 날 강의가 6시간이나 있는데 다른 날 보강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강의를 가야 할 지 아니면 장지에 가야 할 지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였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맑은 발인 날 새벽 문득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항상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하시려 애쓰셨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분명 강의를 가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섭섭하기는 했지만 발인 절차만 보고 바로 강의를 갔던 일이 기억난다.

대학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요 몇년 사이 20년 전 석사논문을 지도 받으면서 들었던 선생님의 그 말씀이 가끔씩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의 목적은 본래 한 쪽으로는 덕성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데 있는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교과목은 크게 나누어서 폭넓은 인간 교육을 통해 전문인을 만들기에 앞서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과목과, 또 다른 측면으로 한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이 두 부분 중에 교양과목은 없고 전공과목만 있다면 대학이 학원이나 직업학교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에서도 직업 윤리를 위한 교양과목은 반드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학 현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대학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졸업을 위한 최소 요건이 140학점으로 낮아진 뒤부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급격하게 기능인만을 양산하는 직업학교처럼 변해가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재정 문제나 담당 교수의 부족으로 폭넓은 교양과목의 개설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도구과목들, 즉, 영어와 컴퓨터는 앞다투어 필수로 가르치면서도 인문계열 중심의 교양과목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또한 그나마 설정된 강좌 가운데 상당수는 마치 백화점 문

화강좌처럼 얽박한 지식을 파는 흥미 위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학부제를 실시하는 많은 대학들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취업이 잘 되는 전공으로만 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인문 계열이나 자연계열 모두 기초가 되는 학문은 마비상태에 이를 지경이다. 또한 최소전공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본래 취지 대로 복수전공을 하거나 전공학점 취득의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좋은 강의를 찾아가기 보다는, 그저 재미있으면서 학점을 얻기 쉬운 과목으로만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내용이 무겁고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강좌는 기피 대상이 되어 폐강으로까지 내몰리는 것이 다반사이며, 근본적으로는 교양과목 자체를 전공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거나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더구나 요즘 대학가에 나타난 새로운 풍경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다. 매스컴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주식투자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장소 또한 학교 앞 PC방을 이용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 안에 설치된 첨단 정보시설이나 실습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식에 투자해 한몫 잡아보려고 은행 대출을 받은 학생도 있고, 등록금을 투자했다가 다 날려서 휴학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꽤 성공하여 운영하는 자본금이 1~2억에 이르는 준 재벌이 된 학생도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 사회가 자유 이념의 토대 위에서 개인의 경쟁을 통한 부의 축적과 사적 소유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는 자본주의 사회만큼 대학생이라고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부를 누리지 말라는 법

은 없다. 하지만 대학이 자신의 내면을 닦아 사회에 헌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아니라 사회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진출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된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 점은 각 대학에 벤처사업을 위한 동아리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君子不器)’라고 하였다. 한번 틀 지워진 그릇은 그 모습이 바뀔 수 없다.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난 모습 밖에 안 나오고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둥근 모습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한 모습으로 틀 지워진 그릇은 끝 한 분야에만 쓸모 있는 기능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기만 잘 다루는 기능인은 다른 일을 맡길 수도 없다. 더구나 사회를 걱정하거나 남을 이끌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조 비리, 의료 비리, 공무원 비리 등은 모두 기능인은 되었을지언정 사람이 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앞서 언급한 대인과 같은 뜻이며, 따라서 소인의 반대 개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은 과거보다도 더 심하게 틀 지워진 그릇 같은 기능인만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교빈**

김교빈

성균관대 대학원 동양철학과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서대 철학과 교수와 교무처장, 교수신문 편집기획위원, (사)한국철학사상연구회회장으로 재임중이다. 논문으로는 “동양철학에서 본 정보화 사회와 개인의 문제”, “새로운 패러다임: 기(氣)”, “동아시아 근대 민중운동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동양철학에세이』(공저),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강좌 한국철학』(공저)이 있고, 역서로는 『중국의학과 철학』(공역), 『기의 철학』(공역), 『현대 중국의 모색』(공동 편역)이 있다.